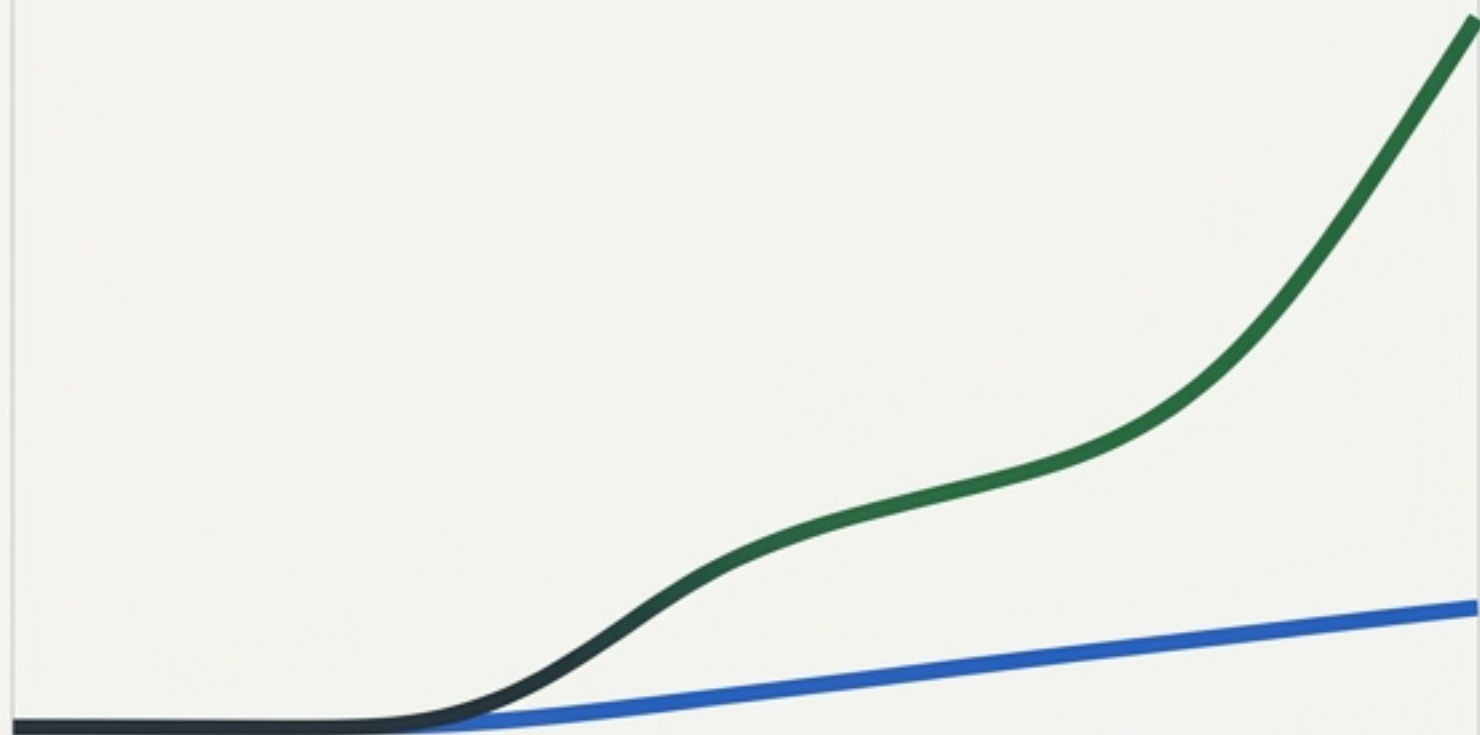




2026년 8월 11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

구조적 차별화와 글로벌 동조화의 역설

핵심 요약: 30초 관전 포인트



코스닥 7% 급등 이변

코스피 대형주가
보합세(6,300선)에 갇힌 반면,
코스닥은 레버리지 ETF와
바이오·반도체 매수세로 6.97%
폭등하며 극심한 차별화 시현



안전자산의 동시다발적 강세

호르무즈 해협 지정학적 위기와
미국 고용 부진이 겹치며
국제유가(\$80.66),
금(\$103,000), 비트코인(\$13) 등
대체 자산 동반 급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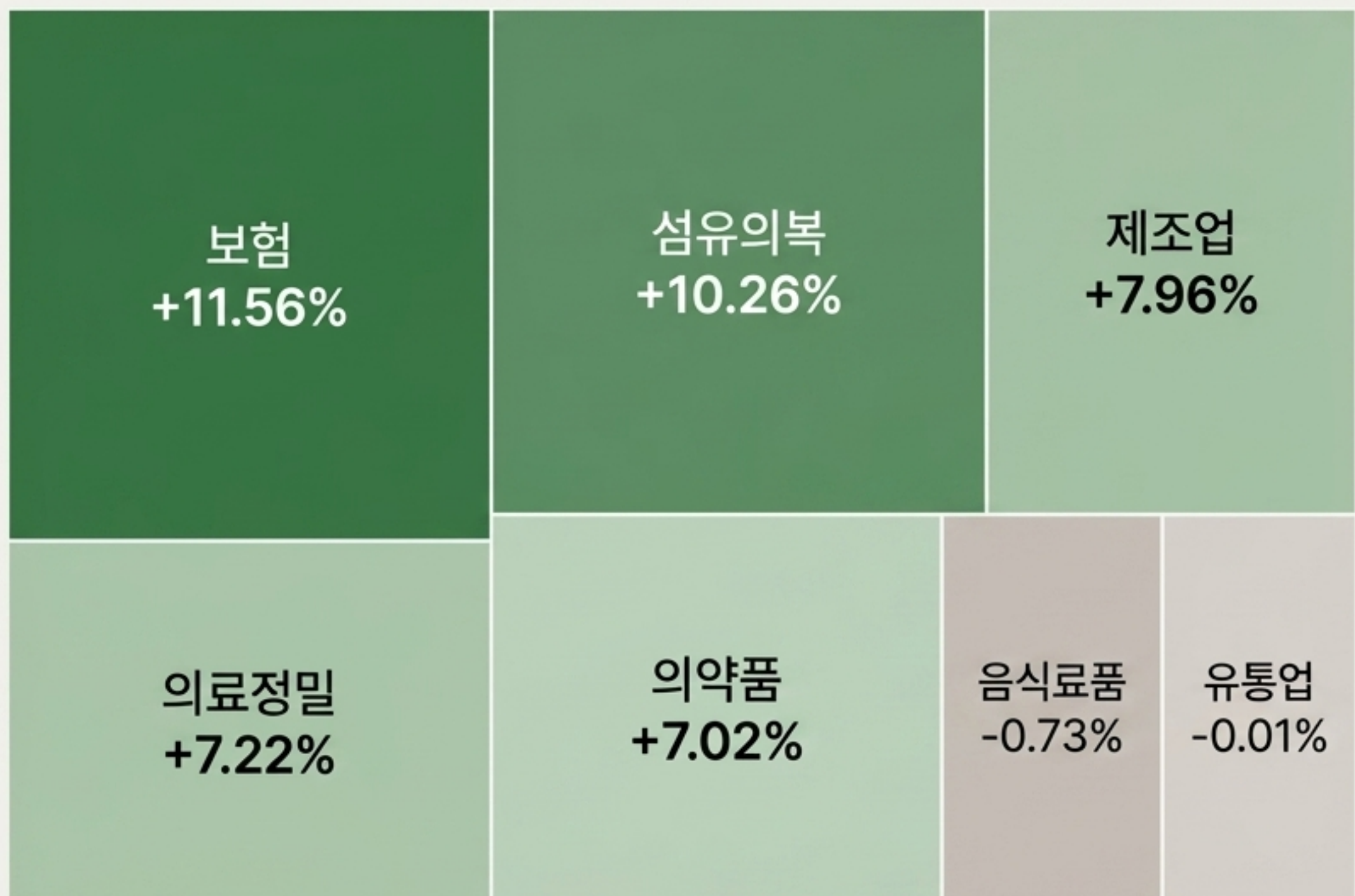
아시아·유럽 증시 동조화 랠리

연준 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
유럽(DAX +2.08%) 및
아시아(닛케이 +2.08%, 항셱
+2.08%) 글로벌 자금 유입 및
동반 강세 확산

국내 증시 진단: 디커플링의 심화

KOSPI 6,299.66 (+0.65%)		KOSDAQ 854.47 (+6.97%)
대형주 중심의 모멘텀 부재 및 6,300선 저항	시장 특징	중소형 성장주(바이오·반도체) 중심의 강력한 랠리
외국인 439.4만 주 대규모 순매도	수 급	개인(365.5만 주) 및 기관(62.5만 주)의 집중 순매수
글로벌 지정학적 불확실성 반영	동 력	테마·레버리지 ETF 중심의 투기적 매수세 폭발

섹터 히트맵 및 자금 이동 경로



⚠ 개미들의 이동

장기투자 하라더니 정책은
오락가락.

- ISA 혜택 축소 논란 등 정책
일관성 부족으로 개인 투자자들은
코스피 우량주 장기투자 대신
미국 증시로 이탈하거나, 코스닥
레버리지 ETF를 통한 단기
변동성 수익 추구로 전략을
급선회 중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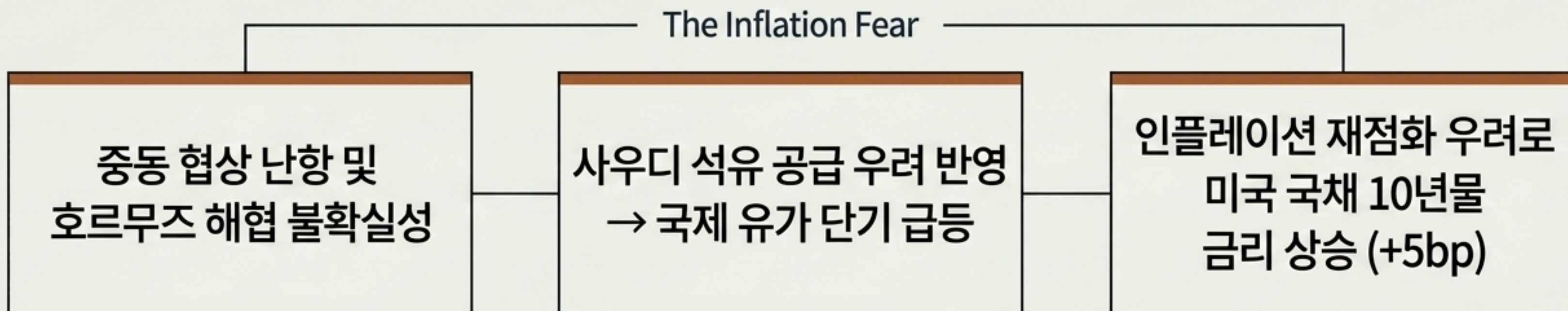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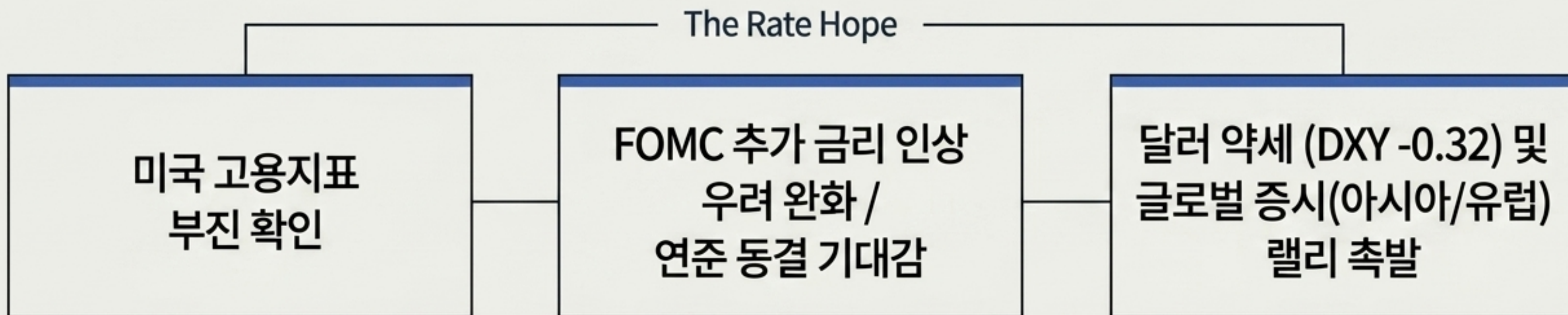
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: 테크 휴지기 vs 모빌리티 약진

종목	현재가	등락률	트렌드
삼성전자	230,000원	-0.43%	
SK하이닉스	1,420,000원	-0.14%	
삼성SDI	481,500원	+4.90%	
현대차	408,000원	+3.16%	
LG에너지솔루션	367,500원	+2.08%	
POSCO홀딩스	336,000원	+1.51%	

반도체(삼성·SK) 숨 고르기 진입. 전기차 배터리(SDI·LG엔솔) 및 완성차(현대·기아) 모멘텀이 시장 하방 경직성 제공.

하방 압력 (The Drag)	하방 지지 (The Support)
S&P 500: 8,000.00 (보합 0.00%) DOW: 54,016.43 (+0.58%)  이란 협상 교착 및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불확실성. 유가 및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나스닥 및 반도체주 장 초반 약세 시현.	서학개미 및 글로벌 자금 유입 지속  파스칼(Pasqal), 핑거모션 등 기술주 개별 호재 존재. 국내 ISA 정책 변동성에 실망한 투자 자금이 미국 장기 투자 펀더멘털을 쫓아 구조적으로 유입되며 지수 방어.

매크로 파급 경로: 두 가지 상충된 내러티브



FICC 대시보드: 리스크 지표의 점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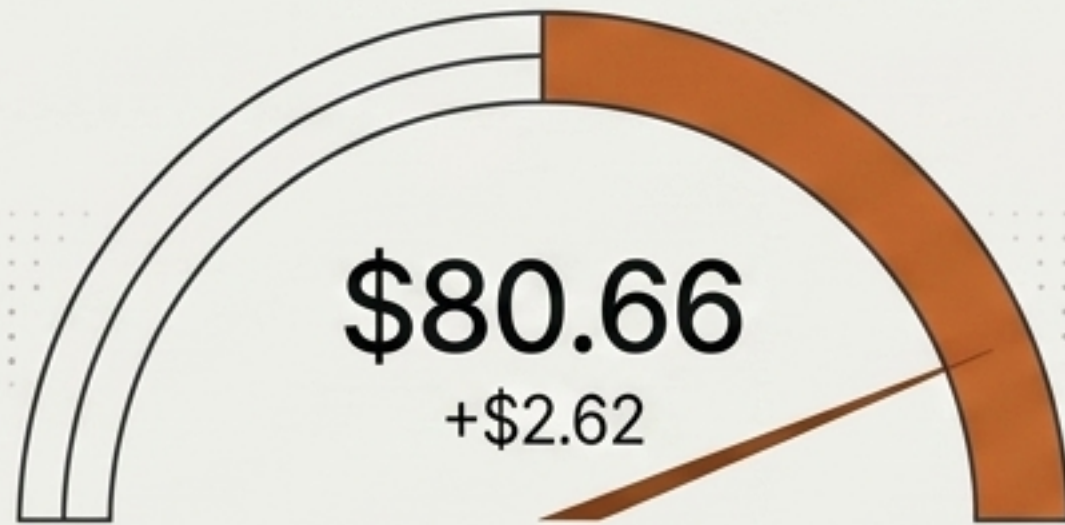
미 국채 10Y (Yield)

FOMC 매파 기조 잔존 및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경계감.



달러인덱스 (DXY)

유로화 강세 및 고용 둔화에 따른 달러 가치 하락.



WTI 원유 (Oil)

호르무즈 지정학적 리스크 및 OPEC 감산 연장 기대.



원/달러 환율 (KRW)

글로벌 달러 약세에 동조화된 원화의 소폭 강세.

대체 자산의 동반 랠리: 전통적 금과 디지털 금



금 (XAU)

\$103,000 (+\$18)

미국 고용 부진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 완화와 중동 불안이 결합하며 완벽한 안전자산 선호 환경 조성.
국내 금값 5거래일 연속 상승.

비트코인 (BTC)

\$13 (+\$1,240 급등)

현물 ETF 순유입 지속 및 달러 약세 헷지 수단으로 부각되며
전례 없는 극심한 변동성 동반 상승 시현.

글로벌 증시 맵: 동조화 랠리와 디스카운트 해소

유럽 (DAX +2.08%, FTSE +2.08%, STOXX +0.62%)

싸구려 꼬리표 떼다. AI 비중이 낮은 유럽 증시가 오히려 경기민감형 랠리를 주도. 방산주 강세 및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으로 글로벌 자금 대거 유입

일본 (Nikkei 225 +2.08%)

달러 대비 엔화 약세 기조 유지로 수출주 중심의 강력한 외국인 수급 유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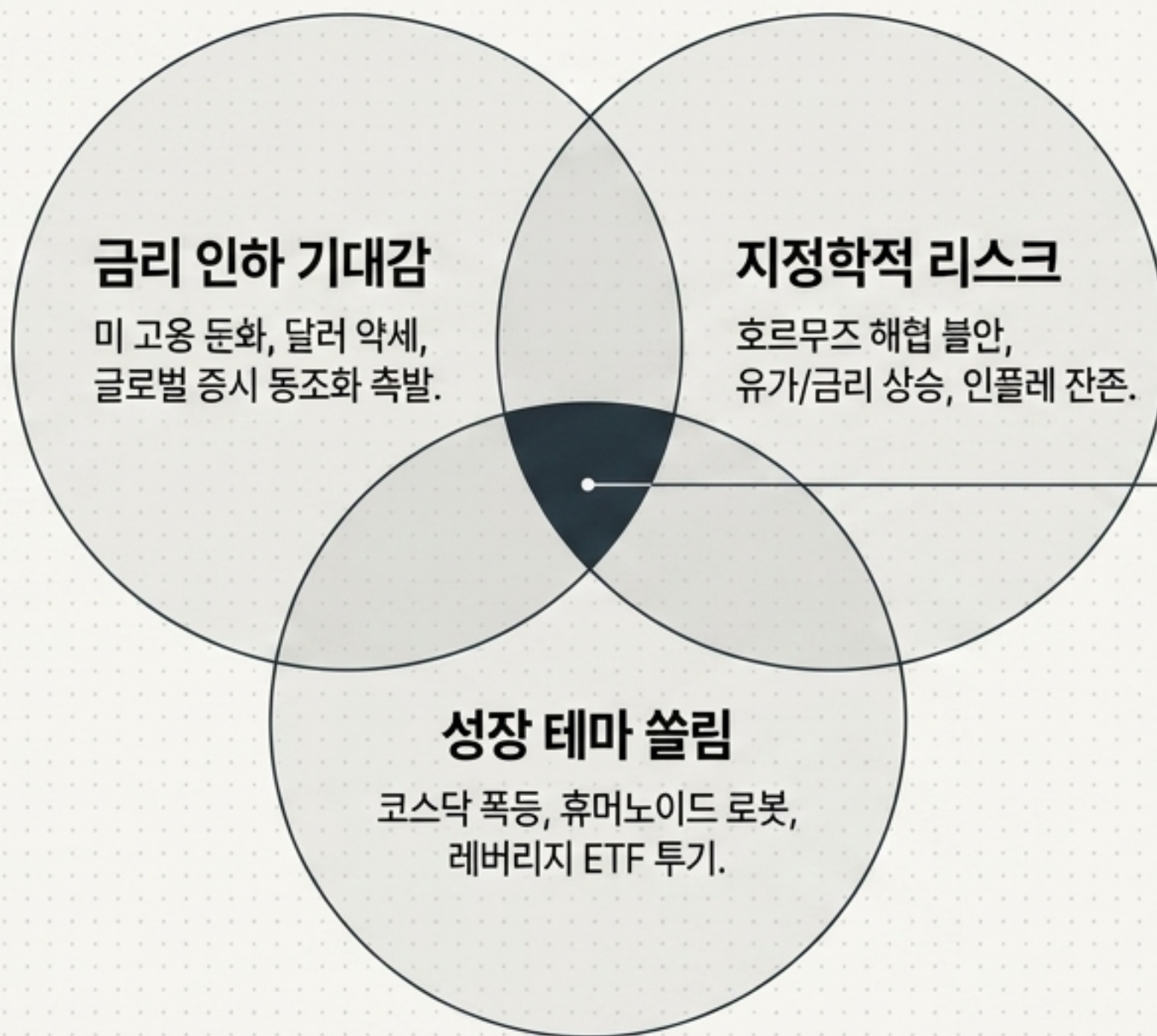
중국/홍콩 (Hang Seng +2.08%, Shanghai +0.45%)

유니트리 등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들의 IPO 기대감이 기술 패권 테마로 작용하며 증시 견인

호주 (ASX 200 +0.52%)

원자재 및 자원주 중심의 안정적 상승세

패러다임 전환: 현재 시장을 움직이는 3대 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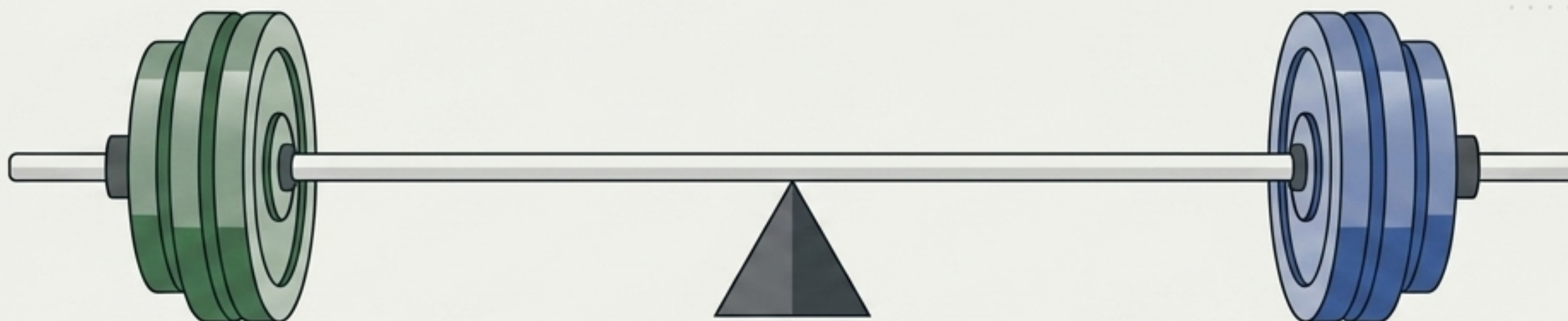


극단적 바벨 장세 (Extreme Barbell Market)

대형주/가치주는 소외되고, '초고위험
성장주'와 '절대 안전자산'이 동시에
급등하는 희귀한 시장 환경 조성.

결론 및 전략:

변동성 장세를 위한 바벨(Barbell) 포트폴리오



비중 확대 (Risk-On / Growth Focus)

코스닥 중소형 반도체 및 바이오,
중국 휴머노이드 관련 테마주.
(단기 모멘텀 및 금리 인하 수혜)

중립 유지 (Neutral / Wait-and-See)

코스피 대형 기술주(삼성전자, SK하이닉스).
(수급 개선 및 매크로 방향성 확인 전까지 관망)

적극 헷지 (Risk-Off / Hedge Focus)

금, 비트코인, 원유 및 자원주.
(호르무즈 리스크 및 인플레이션 재점화 방어용)

방향성 예측보다 변동성 관리가 핵심. 양극단의 자산을 동시에 편입하여 구조적 차별화에 대응하는 전략 필수.